

# 'K-문학' 올해도 승승장구

김혜순·한강·마영신 등 국제문학상 후보 올라

'한국 문학'이 올해도 세계 무대에서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29일 한국문화번역원에 따르면 김혜순의 '날개 환상통', 한강의 '작별하지 않는다', 마영신의 '엄마들' 등이 미국과 프랑스 등 해외 주요 부문에 후보로 올랐다. 권효환 번역위원은 "매년 국제문학상 수상, 또는 입후보하는 작품 수, 해외에서의 한국문학 판매량 등 여러 지표를 고려할 때, 이미 세계문학으로서 한국문학의 장을 열었다"며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도 번역원은 핵심사업에 집중해 전략적 사업 수행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의 한국문학의 영향력을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혜순 시인의 시집 '날개환상통'은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 시부문과 바리오스 번역부문 최종후보(숏리스트)에 동시에 올랐다. 책은 미국 뉴욕타임스가 지난해 말 선정한 '올해 최고의 시집 5권'에 포함됐고 출간 이후 미국 현지 평단에서 호평을 받았다. 최종 수상자는 오는 3월 발표될 예정이다. 프랑스에서는 한국 문학작품 3종이 에밀 기메 아시아 문학상에 입후보했다. 한강의 '작별하지 않는다'와 마영신의 '엄마들', 김숨의 '떠도는 땅'은 문학 분야와 그래픽노블 분야에서 후보에 올랐고 이중 한강과 마영신은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는 지난해 11월 프랑스 4대 문학상인 메디치상을 수상한 바 있다. 마영신 작가의 '엄마들'은 앞서 앙굴렘 국제만화축제 공식 경쟁 부문의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에밀 기메 아시아 문학상은 프랑스 파리 소재 기메박물관에서 수여하는 문학상이다. 2017년 프랑스 내 아시아 문화 활성화를 위해 제정됐고 직전 1년간 프랑스어로 번역·출간된 현대 아시아 문학을 대상으로 한다. 최종 수상작은 오는 2월29일에 발표한다. 번역원 관계자는 늘어난 그래픽노블의 입후보에 대해 "지난 2020년 김금숙 '풀'과 2021년 마영신 '엄마들'이 미국 허비상을 수상한 이후 지원 신청이 증가했다"며 "번역원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지난해까지 총 48건(18개 언어권)의 그래픽노블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뉴스

## 경력단절 위기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전북여성가족재단, '특화형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 운영기관 선정

전북여성가족재단,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전정희 원장)가 여성가족부가 공모한 '특화형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 운영기관에 선정됐다. 지난해 12월 여성가족부가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해 지역적 여건, 사업 수행능력, 사업 운영계획의 타당성·적절성·구체성 등을 심사·평가해 선정했다. '특화형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은 '여성의 경제활동촉진과 경력단절예방'의 법적 근거가 강화됨에 따라 경력단절 위기 요인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화형 경력단절

예방지원사업은 여성가족부와 지자체로부터 2억7,700만원을 지원받아 추진된다. 기존에 운영하던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은 도내 여성 및 기업을 대상으로 경력단절 인식개선, 지역사회 일·생활균형 문화확산을 강조하였다면, '특화형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은 경력설계전문가, 노무사, 경영지도사, 심리상담사 등 전문인력이 노무법률, 경력설계·관리(경력유지, 이·전직 상담), 전문 코칭 등 특화형 사업을 전담해 경력단절 위기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신규 운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경력단절 개인·위기

요인별 수요자 맞춤형 통합사례 관리 서비스 제공 △경력단절예방 선도기업 발굴·네트워킹 △전문인력 배치를 통한 여성의 생애주기 반영한 경력유지 설계 등 선제적 예방사업 발굴과 맞춤형 지원 서비스 수준을 제고할 예정이다. 이에 전정희 원장은 "특화형 사업 선정을 계기로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기존 사업 수행경험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전라북도 특성을 반영한 경력단절예방 심층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함과 동시에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에 특화된 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북여성가족재단 취업지원팀(063-254-3718)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김재훈 기자

## 국립민속국악원, 토티창극교실 성료



국립민속국악원은 겨울방학 동안 어린이들이 창극과 판소리를 배우며 직접 무대에서 공연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창의적인 국악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토티창극교실'이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종현)은 겨울방학 동안 어린이들이 창극과 판소리를 배우며 직접 무대에서 공연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창의적인 국악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토티창극교실'이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프로그램에는 5: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학생들이 참여했으며, 1월 4일부터 1월 20일 국립민속국악원 예원당에서 열린 수료발표회로 화려하게 막을 내렸다. 참가한 학생들은 전통 창극 '별주부전'의 주요 장면과 전래놀이를 통해 창극에 대한 심도 있는 학습으로 진행, 학생들에게 창의력과 협동심을 길러주는 소중한 기회와 각자의 자신감과 재능을 발휘하는 기회가 되었다. 김종현 원장은 "앞으로도 창의적인 예술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의 재능을 발굴할 것"이라며, 전통예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남원=김기주 기자

## "전주역사박물관서 설 명절 즐겨요"

2월 9~12일 '설맞이 한마당' 운영... 체험 행사 풍성

전주역사박물관은 2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설날을 맞아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2024 설맞이 한마당'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푸른 용의 해를 맞아 불록을 이용한 '용' 모양 가방 고리 만들기 △24절기 중 첫 번째인 입춘과 설을 맞아 한해의 길운을 기원하면서 쓰던 입춘방을 장식으로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로 구성됐다. 체험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사전 예약 없이 당일 현장 접수로 하루 200명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주역사박물관은 설 명절 연휴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을 위해 '용' 관련 소장유물을 활용해 박물관 속에 숨겨져 있는 용을 찾아 인증하면 기념품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또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도 상영될 예정이다. 상영 작품은 2024년 푸른

용의 해를 맞아 용이 나오는 애니메이션인 △드래곤 길들이기 △리아와 마지막 드래곤 등 모두 8편이다. 4일간 매일 오후 1시·3시 각각 1편씩 상영한다. 영화 관람은 1회 150명까지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새해 소망을 적어보고 소원 나무에 달아 소원을 빌어볼 수 있는 공간과 야외에서 다양한 전통 놀이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김선옥 시 전주박물관장은 "전주역사박물관에서 갑진년 푸른 용의 해를 맞아 '용'을 주제로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면서 "전주역사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이 가족과 함께 즐기고 추억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역사박물관 누리집과 전주역사박물관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뉴스



(재)완주문화재단이 29일 우리 동네 작은 시네마 '완주 휴시네마' 개관식을 열었다.

## 완주문화재단, '완주 휴시네마' 개관

(재)완주문화재단(이사장 유희태)이 29일 우리 동네 작은 시네마 '완주 휴시네마' (이하 휴시네마) 개관식을 열었다. 휴시네마는 완주군민의 문화 욕구 충족과 다양한 문화 제공에 시설을 전면 개보수, 24일부터 새롭게 문을 열고 운영을 시작했다. 이날 개관식은 식전 공연과 테이프 커팅 등으로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유희태 완주군수, 서남용 완주군의회 의장, 안호영 국회의원, 완주군의원, 지역 단체장과 완주군민 등 100여명

이 자리했다. 휴시네마는 1관 36석, 2관 54석 좌석 규모로 카페도 함께 운영한다. 휴무일은 매주 월요일이며, 예매는 현장,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으로 할 수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주민들이 기다리던 작은 영화관을 다시 개관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영화 관람객만 아니라 주민 누구나 들려 쉬었다 갈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완주=염재복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